

“손흥민, 토트넘 떠날 수도... 레알 마드리드서 눈독”

獨언론, 이적 가능성 언급
“안첼로티 감독이 큰 관심
토트넘 정상등극 어려워
우승 커리어 꿈꾼다면
스페인 빅클럽으로 가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경기 전반 36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활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손흥민(30)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날 수도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25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커리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스페인)와 같은 빅 클럽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덧붙였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유럽 생활을 시작한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341경기에서 136골 76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1-2022시즌엔 EPL에서 23골을 터트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발롱도르 랭킹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다.

엄청난 골 폭풍을 몰아쳤던 지난 시즌과 달리 골을 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2023시즌 EPL 12경기에 나서 3골(2도움)을 기록 중인데, 지난달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뒤 또 다시 리그에선 침묵 중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2골)를 포함하면 공식전 16경기 5골 2도움

이다. 상대의 집중 견제와 이번 페리시치 영입으로 인한 전술적인 문제 등으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는 또 손흥민이 커리어에 우승을 추가하려면 토트넘을 떠나 더 큰 클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1은 “토트넘은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추월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우승 유전자를 가져오려

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흥민이 언제까지 우승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제 자신의 이력에 우승이 추가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나이에 있다. 그는 많은 구단이 원하는 월드클래스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29일 본머스와 EPL 14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리그 3위(승점 23)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우리는 더블 락업 나이 차 극복했어요” 53세 최성국, 24세 신부와 리브스토리 공개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배우 최성국(53)이 24세 신부와 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25일 KBS에 따르면, 최성국은 최근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녹화에 서 미래의 아내를 언급했다. 최성국은 지난 9월 일반인인 예비 신부와의 열애 사실을 고백하고, 내달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최성국은 가수 김완선과 함께 ‘옥문아’를 찾았다. 총각으로서 마지막 방송인 최성국은 모기약으로 아내를 사로

잡은 비법부터, ‘더블 락업’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승낙받은 과정까지 결혼 풀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최성국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완선은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던 순간을 공개하며 훈훈한 우정 케미를 더했다. 이어 최근 발매한 발라드 신곡 ‘사과 꽃’을 라이브로 선보였다는 후문.

최성국은 1995년 SBS 5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했다. 영화 ‘색즉시공’, ‘구세주’ 등에 출연했다. SBS TV 예능 ‘불타는 청춘’,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 등 예능에 나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최성국(왼쪽)과 김완선.

뉴시스

임나영, 영화 ‘유포자들’ 합류... ‘팜프파탈’ 변신

그룹 프리스틴 출신 배우 임나영(사진)이 영화 ‘유포자들’(감독 홍석구)에 합류한다.

소속사 씨브라임은 25일 “임나영이 ‘유포자들’에 캐스팅됐다.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 드리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포자들’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사회, 사람들이 무심코 촬영한 영상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그린 범죄 추적 스릴러다.

극 중 임나영은 팜프파탈 아우라를 뽑내는 ‘김다운’ 역을 맡았다. 그는 도유빈



(박성훈 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인물로, 사건의 키를 쥔 채 본격적인 이야기의 포문을 연다. 오는 11월 개봉한다.

“김민재도 월드클래스”... 英언론 세계 ‘톱10 센터백’에 선정

FIFA도 찬사 “세리에A 최고이자 한국의 보물”

한국 축구의 간판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사진)가 저명한 전문매체가 선정한 세계 10대 센터백에 이름을 올리면서 ‘월드클래스’ 행보를 이어갔다.

영국 축구전문매체 포포투가 25일(한국시간)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중앙수비수 10명을 발표했는데 김민재가 당당히 1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여름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떠

나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김민재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나폴리 입단 이후 곧장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재는 타고난 피지컬과 집중력, 스피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달 세리에A 이탈의 선수상을 받았다. 포포투는 김민재에 대해 “변함없이 꾸준

한 경기력으로 나폴리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하며 나폴리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했다.

톱10 센터백 중 세리에A 소속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했다. EPL이 4명,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3명,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이 1명씩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도 이날 김민재를 조명하며 “대한축구협회(KFA)와 나폴리는 김민재라는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